

함평군, 지방소멸 위기 해소 최선

지역경제 활력 현안사업 추진 박차 금타 이전 주택 조성 인구 늘리기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놓여 있는 함평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을 위한 '금호타이어 이전 지원 TF팀'을 신설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이전하는 토지는 빛그린산단 2단계 사업구역으로 약 50만㎡를 대상으로 한다. 금호타이어는 빛그린산단 일원에 친환경 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게 되며 2200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

또한 오는 2024년 까지 종전 24만5000㎡의 해보농공단지를 50만㎡까지 확장, 자동차 산업 연관 기업 유치 등 배후 산업시설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빛그린산단 일원에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입주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확정된 이후 자동차 연관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026년까지 6

년간 월이면 월아리 일원 10만4636㎡(약 3만 2000평)에 1400세대(일반분양 500세대·민간입대 900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하고 오는 2024년까지 해보면 산내리 일원 9만 9807㎡(약 3만평)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해보농도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오는 2029년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357억원(군비 100%)을 투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차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진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함평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장터', 추석맞이 전 품목 20% 특별할인

담양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 '담양장터(사진)'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오프라인 직매장(담양군 담양읍 면양정로 730)과 온라인 쇼핑몰(www.damyangmk.kr)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행사기간 내 온라인과 모바일 앱 구매고객 중 10명을 선정해 2022년 수확된 담양 햅쌀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담양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600여개 가공식

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쌀과 전통한과, 주류, 장류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 돈가스, 쌀파스타, 요거트, 오란다, 건강보조식품 등 담양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담양장터에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품격 높은 담양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노영민 기자 nyc@kwangju.co.kr



강진 사인머스켓 출하 강진원(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병영면 사인머스켓 농가를 찾아 작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껍질째 먹는 청포도인 사인머스켓 포도는 수확이 시작돼 병영면에서만 하루 300kg 정도를 출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1국 1과 3팀' 증설... '글로벌 강소도시' 구현

비리 오명 '소통정책실' 폐지 민선 7기와 선긋기 나서

나주시가 '1국 1과 3팀' 증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관광문화환경국을 신설해 4국 체제로 늘리고, 미래전략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는 대신 도시재생과는 도시과로 통합했다. 뉴미디어홍보팀, 고향사랑팀, 소상공인지원팀 등 18개 팀을 신설하고, 비서팀 등 15개 팀은 폐지했다.

나주시는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민선8기 들어 '나주대전환'과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구현을

위한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고 설명했다.

시민의 안전 강화와 복지 확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미래전략산업 육성, 관광·교육·스포츠 분야 등을 반영해 민선8기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이라고도 부연했다.

정원 동결 지침에 따른 기존 정원 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와 유사 중복업무 처리 부서 통합으로 일하는 조직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나주시청 안팎에서는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배경에는 각종 부정과 부패, 비리가 만연했던 민선7기와 일종의 선긋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은 시장 직속의 '소통정책실' 폐지다. 전임 민선7기 정부에서 소통정책실이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지로 지목됐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장 직속의 소통정책실은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의 정책홍보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개 팀 통폐합, 4개 팀 분리, 18개 팀 명칭변경, 18개 팀 부서변경 등을 통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역대급 조직개편으로 각종 부정비리가 만연했던 전임정부와 선긋기를 하고 일하는 지방정부의 이미지 변신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주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체류형 관광시설 '강진스테이 OSO' 조성 한창

도시재생 뉴딜 관광인프라 확충

강진군이 민선 8기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개장을 앞둔 체류형 관광시설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군은 강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동성리 305-2번지 일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강진스테이 OSO(오소)'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스테이 OSO(오소)는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과 관계인구 유입의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컨시어지 기능을 도입하고 미식여행, 야간투어 등 소규모 개별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투어상품을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급부상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함께

하는 워크케이션,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예술인 레지던시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 인구 유입의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인구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인구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강진스테이 OSO(오소)는 숙박에 필요한 객실과 함께 워크케이션을 위한 공유오피스, 여행자 편의공간인 여행자 라운지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신(新)강진 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 명,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과 홍보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향토음식 메뉴개발' 식당 25곳 모집

장성군이 지역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 향토음식 메뉴개발 교육'에 참여할 관내 식당 25개소를 모집한다.

향토음식 메뉴개발 교육은 변화하는 미식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상품화, 상차림 및 위생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다루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총 10회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완료 시 수료증도 발급된다.

교육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군은 5년 이내 창업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장성군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팩스(061-390-7585)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성 고유의 맛과 멋을 살린 새로운 레시피 개발 기회가 되어 잠재된 외식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